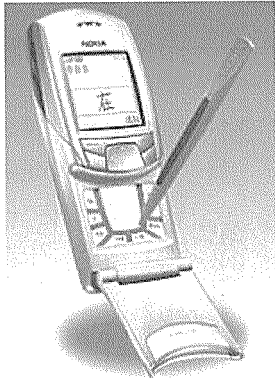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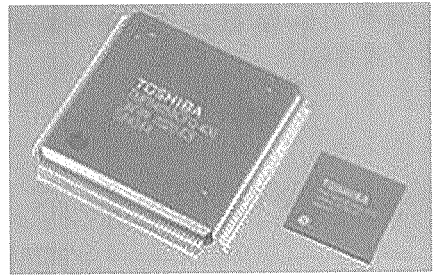




노키아, 한자 입력 휴대폰



노키아가 중국시장을 겨냥해 2발표한 신제품 단말기 '노키아 6108'의 모습. 노키아의 베이징 개발센터가 중국어 사용인구를 대상으로 내놓은 이 제품은 손으로 쓴 한자를 인식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한자인식용 특수펜이 내장돼 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 기능, 자바, 내장형 이메일 프로그램, XHTML 브라우저, 사진기능 등도 갖췄다.



도시바가 오는 8월 샘플출하를 시작하며 12월부터 월 10만개 규모의 64비트 리스크칩을 생산해 레이저프린터, 셋톱박스, 네트워크기기 등 대용량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 디지털 정보기기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 칩은 최고 동작주파수 64MHz로 작동시킬 경우 동작소비전력 0.6W에 그쳐 저전력화를 실현했다.

도시바는 "89년부터 RISC부문 제휴사인 미국 밍스의 RISC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도시바 독자기술인 'TX49/H4'를 탑재해 동작 소비전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명령캐시메모리와 데이터캐시메모리를 32로 대용량화하고 부동소수점·정수 유닛을 개별적으로 내장, 부종소수점 연산과 정수 연산을 완전하게 독립해 실행시킬 수 있다.

도시바, 92nm 공정 64비트 RISC 발표

도시바가 90nm 공정을 이용한 6층 구리배선방식의 프로세서를 사용한 64비트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 12월부터 양산 공급한다.

소니, TV 패널 자체 생산

소니가 그동안 기술을 개발해온 유기EL을 TV용 액정패널로 양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소니는 "지금까지 한국의 LG필립스 등 외



부 조달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TV용 액정패널을 자체 양산하기 위한 구체적 투자금액과 내용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며 "이는 최근 박막형 TV시장이 예상을 넘는 급성장을 보여 패널의 자체 생산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이 노부유키 소니 회장 겸 CEO는 "지금껏 소니가 액정패널을 제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며 패널 제조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안도 구니타케 소니 사장 겸 COO는 "(다른 업체와의 공동 투자 등도 포함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니는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유기EL을 평판 디스플레이(FDP)로 활용키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소니는 "일러도 2007년 이후에야 TV용 패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EL의 대규모 양산 투자에 들어가 2005년부터 조달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소니는 또 자사가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공급하는 전하결합소자(CCD) 생산량을 올 가을부터 기존의 2배에 가까운 월 75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의 반도체공장 '팹1'에서는 카메라폰용 CMOS센서 생산을 개시할 방침이다.

인텔, 157nm 장비 동업 포기 파장

인텔이 157nm 리소그래피 장비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극자의선(EUV:Extreme Ultra Violet) 장비로 직행할 계획을 밝히자 지금까지 인텔의 로드맵에 따라 생산을 준비하던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몇몇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인텔은 지금까지 장비업체들이 157nm 장비에 투자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며 "그러다 EUV 장비 개발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자신만 쪽 빠져버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껏 157nm 장비에 투자해온) 많은 CEO들이 인텔의 결정으로 157nm 시대가 끝장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텔에 리소그래피를 제공하는 2대 업체 중 하나인 ASML은 인텔의 결정에 상관없이 157nm급 장비 개발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EUV 장비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SML측은 "(인텔이 아닌 다른 고객들도 있으며) 고객들이 원하면 자사는 157nm 장비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는 내년 중 157nm급 장비를 내놓을 계획이다.

캐논의 레이 모건 전략마케팅 매니저는 "인텔이 내린 결정에 대해 별 다른 할 말이 없다"며 "캐논은 기존의 157nm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SB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캐논은 내년 1분기에 예정대로 157nm 장비를 출시할 방침이다.

반면 인텔의 또 다른 2대 리소그래피 제공 업체인 일본 니콘은 "인텔의 결정에 맞춰 자사도 이에 따를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157nm 장비 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니콘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애널리스트와 다른 반도체업체들도 인텔의 결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니콜라스 가우도이스 장비부문 디렉터는 “45nm 공정은 오는 2007년 인텔의 주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시점에) 45nm 공정을 적용한 193nm 장비가 제대로 가동될지, 아니면 EUV 장비가 실용화될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9년에 30nm 공정을 채택한 EUV가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혔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의 앨런 바우링 연구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45nm 공정을 193nm급 장비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도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EUV 장비는 2011년, 어쩌면 더 늦게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텔의 리소그래피 장비부문 피터 실버맨 디렉터는 최근 “인텔은 193nm급 장비에 45nm 공정을 적용하고, 32nm 공정에서는 EUV 리소그래피 기술 채택이 유력하다”고 말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193nm급 장비에서 90nm, 65nm, 45nm 공정을 적용시키고 차세대 장비로 EUV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니스, 담배갑보다 작은 1.5GB 하드 드라이브 등장

미국 벤처기업인 코니스가 1인치 크기의 1.5Gb 하드드라이브를 개발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코니스는 “플래시메모리카드나 미니 하드

드라이브보다 작고 값이 싸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드라이브를 개발해 제조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하드드라이브가 PC용이 아닌 디지털비디오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휴대형 전자기기에 폭넓게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니스는 이 하드드라이브를 현재 65달러 정도에 제공 중이며 앞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을 50달러로 크게 낮출 계획이다. 이 제품은 경쟁 저장매체인 219달러인 IBM의 1인치 마이크로드라이브, 약 2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1Gb 플래시카드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하드드라이브가 휴대형 전자기기 시장을 자극하는 새로운 촉발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필립스 · 비자, 무선 신용카드 결제 제휴

신용카드업체 비자인터내셔널과 유럽의 정보기술(IT) 업체 로열필립스일렉트로닉스가 비접촉식 신용카드 결제용 반도체 개발 및 마케팅 부문에서 협력기로 합의했다.

구매한 물건 값을 무선기술을 이용해 단거리에서 결제할 수 있는 비접촉식 신용카드용 반도체는 이르면 내년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필립스세미컨덕터의 카르스텐 오펜베르크 부사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결제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시간과 장소, 단말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지불 가능한 ‘유니버설 커머스(universal commerce)’가 실현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필립스는 TV와 PC는 물론 가전기기들을 연결해 소통하도록 하는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전략의 일환으로 유니버설 커머스를 추진해 왔다.

두 회사는 이번에 개발기로 한 칩이 재고추적이나 대금결제 등의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필립스가 주력해온 무선ID(RFID) 기술인 ‘미페어(Mifare)’에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두 회사 관계자들은 제조업 및 서비스분야 업체들과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폰, 전자사전핸드폰 개발

세계 최초로 ‘카메라폰’을 내놓은 일본 J폰이 이번엔 11만6000단어를 수록한 전자사전 휴대폰을 선보인다.

도시바가 만든 이 휴대폰은 카메라 기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데다 일본어사전, 영·일사전, 일·영사전까지 탑재했다. 31만 화소 CCD와 640×480비트 VGA도 갖췄다. SD메모리카드를 지원, 256Gb의 메모리 용량

을 바탕으로 최대 2시간 동안 녹화를 할 수도 있다.

이 휴대폰은 발음은 같지만 한자를 달리 쓰는 경우가 많은 일본어로 메일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최근 10~20대 일본 젊은이들의 한자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예상외의 ‘대박’을 몰고 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월 중 코니스의 하드드라이브를 탑재한 디지털비디오카메라를 미국시장에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RCA/툼슨, 리오 등 5개 업체가 이 하드드라이드를 채택한 MP3플레이어를 이번달부터 미국시장에 내놓는다. 코니스측은 “이들을 포함해 12개 제조업체들이 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NEC, 유기2차전지 개발

IBM이 새로운 종류의 기업용 데스크톱을 선보였다.

세계 PC시장에서 델컴퓨터와 HP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IBM은 21일(현지시각) 기업시장을 겨냥해 ‘싱크센터(ThinkCentre)’라는 데스크톱PC를 개발, 발표했다.

IBM은 우선 ‘싱크센터 S50’ ‘싱크센터 A50p’ ‘싱크센터 M50’ 등 3종을 선보이고 차차 모델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IBM의 한 관계자는 “싱크센터 PC는 이전



넷비스타 PC에 새로운 디자인과 '싱크벤처지' 라는 신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라며 "3개 모델 중 S50 데스크톱이 크기가 가장 작으며, A50p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M50은 레드햇과 수세의 리눅스 버전과 함께 출시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NTT, 1기가 광통신 서비스 기술 개발

일본 1위 통신업체인 NTT가 가정 및 기업용 광케이블 통신의 전송속도를 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속도는 120분 분량의 TV영상을 단 30초만에 송수신할 수 있게 한다. 또 이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가정·기업용 광케이블 통신(FTTH) 속도인 100Mb의 10배에 달한다.

NTT측은 "(기술적으로) 광신호를 주고 받을 때 빛이 지나가는 통신회로인 '도파로'에서 광신호가 누출된다"며 "이 도파로의 재료를 개량해 빛의 누출을 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속도가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신기술을 활용한 대규모집적회로(LSI) 양산기술을 1~2년 내 확립해 실용화한다는 방침이다.

NTT는 광케이블 서비스 'B후렛츠'를 통해 이용자는 30만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기술 등을 통해 광통신 서비스를 적극 추진, 2005년까지 이용자를 520만명으로 확대할 방

침이다.

TDK, 4096색 구현 유기EL 디스플레이 개발

일본 TDK가 최근 수동구동방식으로는 업계 최고인 4096색 멀티 컬러를 실현한 유기EL 디스플레이를 개발, 올해말부터 양산에 나선다.

TDK는 수명이 길고 높은 휘도를 갖춘 백색발광소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디스플레이에 채택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색상수를 대폭 늘렸다.

이번 제품은 크기 79×20mm에 화소수가 256×64도트, 휘도는 미터당 100칸델라다. 수명이 1만시간 이상이며 작동 온도가 85도까지 가능해 고온성능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TDK는 이른 시일내 샘플 출하를 개시하고, 우선 차량기기, 휴대형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주요 타깃으로 한 패널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 NEC가 고출력 유기 2차전지를 개발했다.

NEC가 개발에 성공한 유기 2차전지는 리튬전지에 비해 짧은 시간에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또 리튬전지보다 소형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유기 2차전지를 데스크톱PC에 탑재하면 갑자기 정전이 될 경우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 보존이 가능하고, NEC는 오는 2005년부터 이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